

2019학년도 수능대비 강의노트

나올 것만 정리하는 문법 Final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Orbi Class 인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現 대치 이강학원

前 외고, 자사고 특강, 이투스

[저서] 사관학교 1차시험 실전모의고사

[감수] 비문학 교과서독해 시리즈

Orbi Class

음절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국어의 음절은 반드시 모음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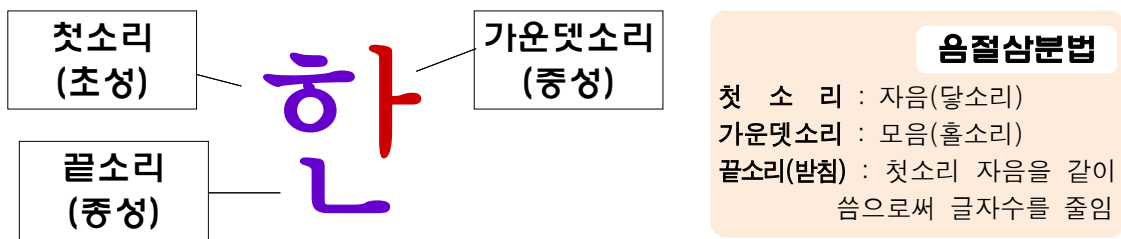
음절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모음의 앞뒤에 자음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없으므로 모음에 붙어야 한다.

국어의 음절은 ‘아, 어, 여, 왜……’와 같이 **모음**만으로 되는 음절

‘안, 옥, 울, 열, 윈……’과 같이 **모음+자음**으로 되는 음절

‘가, 나, 교……’와 같이 **자음+모음**으로 되는 음절

‘강, 산, 달, 별……’과 같이 **자음+모음+자음**으로 되는 음절, 네 종류가 있다.



품사

형태 변화	기능	의미		예
가변어	용언	동사	움직임을 나타냄	달리다, 먹다, 자다, 공부하다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냄	예쁘다, 빠르다, 검다
불변어	체언	명사	이름을 가리킴	책, 사람, 전화기, 개
		대명사	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	나, 너, 그, 우리, 그것
		수사	수(數), 순서를 나타냄	하나, 둘, 일, 이, 삼
	수식언	관형사	주로 체언을 꾸밈	한, 두, 옛, 오랜, 새
		부사	주로 용언을 꾸밈	정말, 매우, 참, 아주, 꽤
	관계언	조사	문장성분들 간의 관계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줌	이/가, 은/는, 을/를, 에게, 에서, 만, 도
독립언	감탄사	감탄, 부름, 대답 등	깽, 으, 야, 어이	

용언의 활용

‘활용’이란 용언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기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즉,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이다.

• 어간 -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뜻을 지닌 줄기가 되는 부분이다.

• 어미 -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어간 뒤에 붙는다.

단어의 끝에 오는 ()와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가 있다.

[1강] Chapter2. 음운변동

[음운이란?]

: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

- 분절음운
- 비분절음운

[음운 변동, 표준발음규정]

- 발음할 때의 음운현상을 규정한 규칙

[음운 변동의 출제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파악하기
교체	1. 교체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2. 동화	자음동화(비음화, 유음화), 모음동화
3. 탈락		자음탈락(ㅎ, ㅅ, ㄹ탈락), 모음탈락(ㅡ, ㅛ, 동음탈락) 자음군단순화
4. 축약		거센소리되기(자음축약), 모음축약
5. 첨가		사잇소리 현상, ㄴ첨가, 반모음 ㅣ첨가

1.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

[끝소리 규칙]

앞	→	[입]
옷, 낫, 꽃, 바깥, 히읃		[읃], [낫], [꽃], [바깥], [히읃]
밖, 부엌		[밖], [부엌]

[연음현상과 함께 이해]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온다면?

예) 옷이, 옷을, 값이, 값을, 낫으로

> 단어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온다면?

예) 꽃 위, 옷 안, 옷 아래

(2) 된소리되기 (경음화)

: 두 개의 안울림소리(장애음)가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장애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를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국밥 → 「국뽕」, 견고 → 「견꼬」, 없다 → 「업따」,
덧개 → 「덧깨」, 역도 → [역또], 젓소 → [젓쏘]

- 단, 어간말 자음이 ‘ㄴ, ㄹ’일 때 뒤 따르는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함.

(굶고 [굶:꼬], 신고 [신:꼬], 갈 데가 [갈 떼가] 등)

2. 동화

(1) 자음동화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 비음화(ㅁ, ㄴ, ㅇ)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ㄱ)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ㅂ, ㄸ, ㅌ → [ㅁ, ㄴ, ㅇ] / ㅁ, ㄴ 앞

(ㄴ) 유음 'ㄹ'이 비음 'ㅁ, ㅇ'을 만나면 비음 'ㄴ'으로 변화

ㄹ → [ㄴ] / ㅁ, ㅇ 앞

(ㄷ) ㅂ, ㄸ, ㅌ + ㄹ → [ㅁ, ㄴ, ㅇ] + [ㄴ]

예) 국물, 남루, 독립, 섬리 등

- 유음화(ㄹ) :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ㄴ' 과 'ㄹ' 이 만났을 때 'ㄴ' 이 'ㄹ' 로 바뀌는 현상 ㄴ-ㄹ/ㄹ의 앞이나 뒤	신라 → [실라], 천리 → [철리], 논리 → [놀리] (설측음화)
	칼날 → [칼랄], 찰나 → [찰라], 말눈 → [말룬], 실날같이 → 실랄가티 → [실랄가치] 앓는 → 알는 → [알른], 끌는 → 끌는 → [끌른], 훑는 → 훑는 → [훑른]

<예외>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딤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2) 모음동화

: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는 현상 => 대부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설모음화 : 후행 'ㅣ'의 영향으로 선행 'ㅏ, ㅑ, ㅓ, ㅕ'가 'ㅐ, ㅔ, ㅖ, ㅘ'로 바뀌는 현상

예> 아비 → [애비], 잡히다 → 자피다 → [재피다], 먹이다 → 머기다 → [메기다]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설모음화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구개음화

: 'ㄷ, ㅌ' 등의 치조음이 'ㅣ' 모음과 결합할 때, 'ㅈ, ㅊ' 등의 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예) 달히어 [다티어→다치어→다쳐], 굳히다[구티다→구치다]

3. 탈락 / 축약

[1] 자음탈락

- ‘ㄹ’ 탈락 규칙 : ‘ㄹ’이 뒤에 오는 잇몸소리 혹은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
 - (합성/파생) 합성과 파생 과정에서의 ‘ㄹ’탈락 : 끝소리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싸전(쌀-전), 여단이(열-단이)
 - (용언) 활용 과정에서 ‘ㄹ’의 탈락 : ‘ㄹ’규칙 용언에서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ㅇ’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동글다 : 동그니, 동근, 동급니다
- (용언) ‘ㅎ’의 탈락 : ‘ㅎ’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ㅎ’이 탈락
날은 [나은], 놓아 [노아], 쌓이다 [싸이다], 많아 [마나], 앓은 [아는], 닳아 [다라]
- (용언) ‘ㅅ’ 탈락 : 원래의 형태소에서 ‘ㅅ’이 탈락하는 현상
긋다 → 그어, 잇다 → 이어 등
- (합성) 동음탈락 : 동음 중 앞자음이 탈락하는 형상
간난 → 가난, 목과 → 모과

[2] 자음군 단순화

- 1) ^ㅁ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
예) 값, 뭇, 앓고, 외곶, 핥고
- 2) ^ㄴ은 둘째 자음이 남는다.
예) 삶, 읊지
- 3) ^ㄹ은 불규칙적 (<보기> 활용)

[3] 모음탈락

구 분	성 격	예 시
동음탈락	이어진 동음 중 뒤의 모음 탈락	가아 → 가
음절탈락(하)	안울림소리 뒤	생각하지 → 생각지
‘ㅏ’탈락	울림소리 뒤	흔하지 → 흔치
‘ㅓ’탈락	어미 ‘-어’ 앞에서 탈락	푸어 → 퍼
‘ㅡ’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	쓰어 → 써

* 동음탈락 : -아서, -어서, -어라, -아라 등이 오는 경우에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

[4] 음절의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 두 소리가 이어질 때 두 소리의 성질을 모두 가진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

- 자음 축약 : ‘ㅂ, ㄷ, ㄱ, ㅈ’ + ‘ㅎ’ → ‘ㅃ, ㅌ, ㅋ, ㆁ’
ex) 좋고 → [조코], 읊지 → [을치], 잡히다 → [자피다],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 모음 축약 : 두 모음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ex) 오+아서 →와서, 두+었다 →뒀다, 되+어 →돼, 가지+어 →[가져]

4. 첨가

[1]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성립하는 패턴]

0. 합성어

1. 접점에 올림소리가 존재해야 함.

2. 발음상 조건 충족 (된소리, ㄴ첨가, ㄴㄴ첨가)

[조건1] 올림소리 + 안올림예사소리 (밤길, 눈사람, 코등)

[조건2] 모음 + 안올림예사소리 (벧사공, 촛불)

[조건3] 모음 + 올림소리(ㄹ, ㄴ) (이몸, 코날)

[조건4] 모음 + 모음 (가윗일, 예삿일)

[조건5] 뒷말이 'ㅣ'로 시작될 때 (논일, 물약, 아래이)

[사이시옷까지 붙이는 패턴]

+3.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받침이 없을 경우]

+4.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

— <보기>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

[2] ㄴ첨가

[ㄴ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가 들어가는 이중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ㄴ이 발음시 덧난다.

예) 숨+이불, 눈+요기, 교육+열, 발+이랑(명사)

5. 꼭 정리해야 할 EBS 문항 정리

[문제(수능특강)]

(가)를 참고할 때 (나)의 ㉠ 중 음운 변동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가)

같은 자음이 탈락한다고 해서 동일한 음운 변동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즉 '탈락'이라는 유형에 속한다는 점은 같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음운 변동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가령 동일한 'ㄹ'이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닭+는 → [담:는]'에서 'ㄹ'이 탈락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것이고 '알+는 → [아:는]'에서 'ㄹ'이 탈락하는 것은 유음 탈락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닭+는 → [담:는]'의 경우는 음절의 종성에서 자음이 두 개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에 의한 것이지만, '알+는 → [아:는]'은 그러한 제약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

다음 ㉠은 모두 'ㅎ'이 탈락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ㅎ'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다.

㉠ 닭아[다라], 앓는[안는], 놓으니[노으니], 쌓아[싸아], 끊은[끄는]

- ① 닭아[다라]
- ② 앓는[안는]
- ③ 놓으니[노으니]
- ④ 쌓아[싸아]
- ⑤ 끊은[끄는]

[문제(수능특강)]

다음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절의 수가 줄어들면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하므로 모음의 수가 줄면 자동적으로 음절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음의 수가 줄어드는 방식은 반드시 모음이 탈락하거나 또는 두 개의 모음이 한 모음으로 축약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령 단모음이 탈락하지 않고 반모음인 'j'나 'w'로 바뀌어도 모음의 수가 줄어든다. 이럴 경우 ㉠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서도 음절 수는 줄게 된다.

- ① '아이'가 줄어서 '애[애:]'가 되었다.
- ② '쏘-'에 '-아'가 결합하여 '쌌[쌌:]'가 되었다.
- ③ '쓰-'에 '-어서'가 결합하여 '써서[써서:]'가 되었다.
- ④ '깨-'에 '-어서'가 결합하여 '깨서[깨:서:]'가 되었다.
- ⑤ '가-'에 '-아서'가 결합하여 '가서[가서:]'가 되었다.

[지문(수능특강)]

{003~0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한글 자모 24자 중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모음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자이다. 10자를 제외한 다른 모음자, 가령 ‘ㅘ, ㅙ, ㅚ, ㅜ, ㅠ, ㅞ, ㅟ’는 하나의 모음자가 아니고 둘 또는 세 개의 모음자가 합쳐진 것으로 처리된다.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하나의 글자로 보고 어떤 것은 둘 이상의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은 한글을 처음 만들 당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결과이다.

한글을 처음 만들었던 15세기의 모음자는 현재와 달리 11자였다. 현대 국어와 비교할 때 ‘ㆍ’가 더 있었다. 이러한 11자의 모음자는 그 성격에 따라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의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천지인(天地人)’을 본떠 만든 ‘ㆍ, ㅡ, ㅣ’는 기본자, 기본자들을 합쳐서 만든 ‘ㅏ, ㅑ, ㅓ, ㅕ’는 초출자, 초출자에 ‘ㆍ’를 더하여 만든 ‘ㅛ, ㅝ, ㅟ, ㅠ’는 재출자가 된다. 기본자와 초출자는 그 당시 존재하던 7개의 단모음을 온전히 나타낸다. 반면 재출자는 초출자 ‘ㅏ, ㅑ, ㅓ, ㅕ’가 가리키는 단모음 앞에 반모음 ‘ㅚ’가 더해진 이중 모음을 나타낸다. 그 당시 11자의 모음자는 하나의 글자로 보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자들은 둘 이상의 글자가 합쳐졌다고 보았다.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모음 체계에는 변화가 생겼다. ‘ㆍ’가 없어지고 이중 모음 이던 ‘ㅘ, ㅙ, ㅚ, ㅜ, ㅠ’가 새롭게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ㆍ’가 사라지면서 이 모음을 나타내던 글자도 함께 없어졌다. 즉 모음의 변화가 모음자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ㅘ, ㅙ, ㅚ’는 단모음으로 바뀌었지만 이 모음들을 나타내는 글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이 글자들은 하나의 모음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여전히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처리되어 모음자 10자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ㅘ, ㅙ, ㅚ’가 이중 모음이었고 각각 ‘ㅏ + ㅓ, ㅑ + ㅓ, ㅓ + ㅓ’와 같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처리된 데에서 유래한다.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의 단모음 수는 현대 국어보다 더 적다.
- ② 중세 국어의 단모음 중 후대에 사라진 것이 있다.
- ③ 중세 국어의 단모음은 하나의 모음자로 나타낸다.
- ④ 중세 국어의 이중 모음 중 후대에 단모음으로 바뀐 것이 있다.
- ⑤ 중세 국어에서 두 글자로 된 모음자 중 하나의 글자로 바뀐 것이 있다.

[문제]

윗글을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ㅑ’는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글자이다.
- ② 중세 국어의 ‘ㅘ’는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글자이다.
- ③ 현대 국어의 ‘ㅚ’는 단모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글자이다.
- ④ 중세 국어의 ‘ㆍ’는 단모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글자이다.
- ⑤ 현대 국어의 ‘ㅞ’는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글자이다.

[문제(수능특강)]

(가)를 참고하여 (나)를 해석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조음 방법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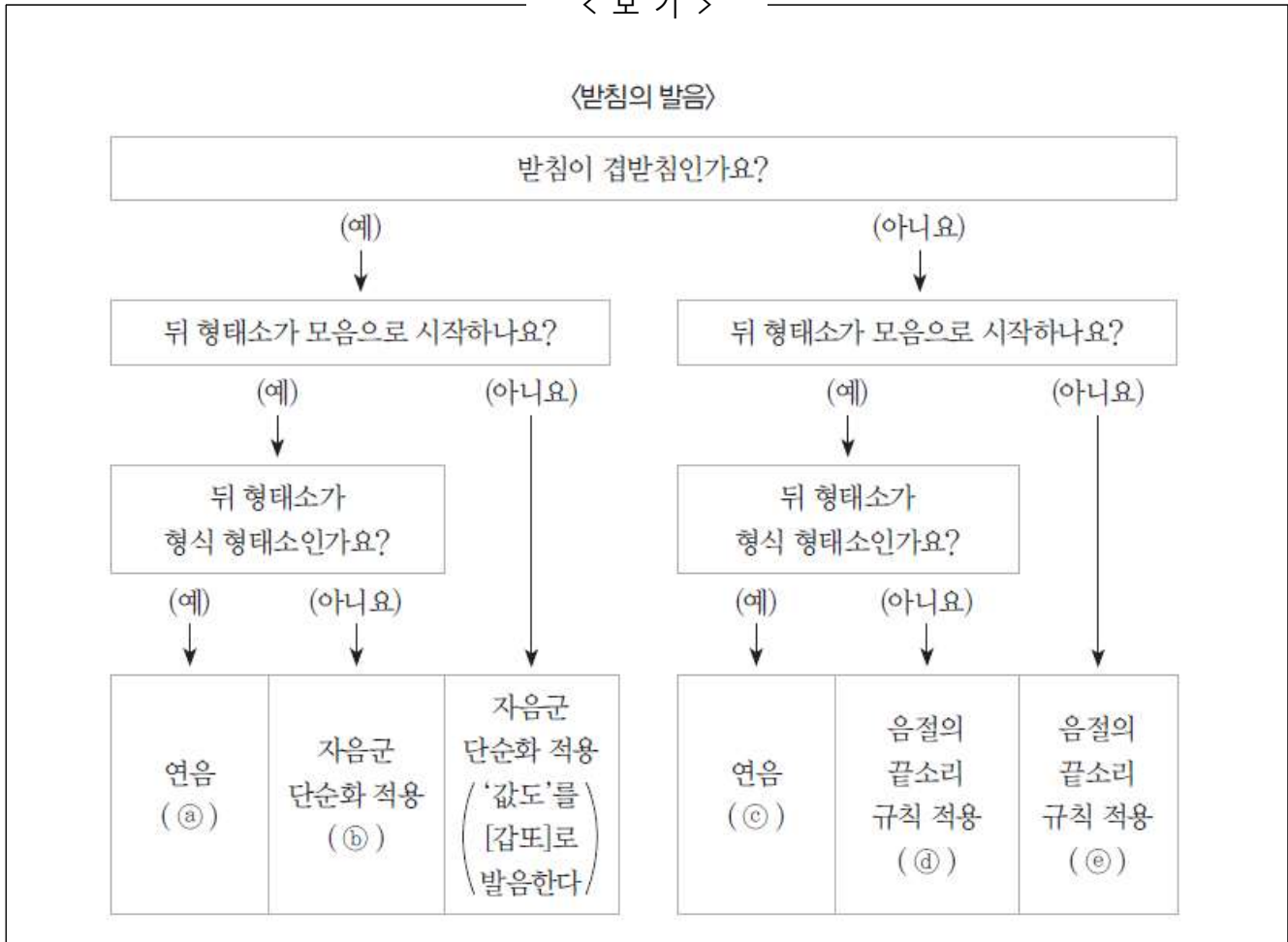
(나)

- ㉠: 잡 + 는 → [잡는], 믿 + 는 → [민는], 적 + 는 → [정는]
 ㉡: 칼 + 날 → [칼날], 별 + 님 → [별:림], 물 + 놀이 → [물로리]

- ① ㉠와 ㉡는 조음 위치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② ㉠와 ㉡는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③ ㉠는 조음 위치, ㉡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④ ㉠는 조음 방법, ㉡는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⑤ ㉠와 ㉡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문제(수능특강)]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덟이’를 [여덜비]로 발음한다.
- ② ㉡: ‘흫얼개’를 [흐겅개]로 발음한다.
- ③ ㉢: ‘밭은’을 [바튼]으로 발음한다.
- ④ ㉣: ‘맛있다’를 [마싣따]로 발음한다.
- ⑤ ㉥: ‘숲과’를 [숲꽈]로 발음한다.

[문제(수능완성)]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1 > —

음운 변동은 일반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진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변동 전후에 음운의 수에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 탈락, 첨가, 축약은 변동 전후에 음운의 수가 다르다.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과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의 경우에는 변동으로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들고,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의 경우에는 변동으로 음운의 수가 하나 늘어난다.

— < 보 기 2 > —

- ㉠ 꽃도 → [꼰또]
- ㉡ 물약 → [물략]
- ㉢ 술한 → [수탄]
- ㉣ 읽는 → [잉는]
- ㉤ 색연필 → [생년필]

- ① ㉠: 'ㄷ'이 'ㄸ'으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지만, 'ㄷ'이 'ㄸ'으로 바뀌는 첨가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늘었군.
- ② ㉡: 'ㄴ'의 첨가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늘었지만, 'ㄴ'이 'ㄹ'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군.
- ③ ㉢: 'ㅌ'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지만, 'ㄷ'과 'ㅎ'이 합쳐져서 'ㅌ'으로 바뀌는 축약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줄었군.
- ④ ㉣: 'ㄹ'의 탈락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줄었지만, 'ㄱ'이 'ㅇ'으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군.
- ⑤ ㉤: 'ㄴ'의 첨가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늘었지만, 'ㄱ'이 'ㅇ'으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군.

[문제(수능완성)]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예사소리가 만나면 어미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된소리되기만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음운 변동이 된소리되기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두 변동만 일어나는 경우와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 두 변동만 일어나는 경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세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	㉡	㉢
①	입--+고	없--+고	앉--+지
②	뱀--+고	뱃--+고	윙--+고
③	빗--+지	읽--+지	삼--+고
④	엮--+지	닭--+지	핥--+지
⑤	짚--+지	없--+지	짹--+고

[문제(수능완성)]

<보기>를 참고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동화는 어떤 소리가 주변의 소리와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자음 동화에는 파열음인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는 비음화와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 위치가 같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조음 방법 동화에 해당한다. 한편 유음화는 ‘ㄹ’이 뒤에 오는 ‘ㄴ’에 영향을 주는 순행적 유음화와 ‘ㄹ’이 앞에 오는 ‘ㄴ’에 영향을 주는 역행적 유음화로 나뉜다.

- ① ‘곡물[공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에 해당하는군.
- ② ‘설날[설:랄]’은 ‘ㄴ’이 ‘ㄹ’ 뒤에서 유음으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에 해당하는군.
- ③ ‘밥물[밤물]’과 ‘난로[날:로]’는 모두 뒤에 오는 소리의 영향으로 동화가 이루어졌군.
- ④ ‘말며느리[만며느리]’의 ‘ㄷ’은 ‘ㄹ’ 앞에서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조음 방법이 달라지는군.
- ⑤ ‘권력[꺄력]’과 달리 ‘국난[궁난]’은 조음 위치가 같고 조음 방법만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군.

[2강] Chapter1. 형태소, 합성어/파생어

[배우고 있는 부분, 지도 그리기]

음운 - 형태소 - 단어 - 구, 절 - 문장

1. 형태소의 분류

○ 형태소 : 뜻(의미)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의미의 최소단위)

1) 자립성 유무에 따라

┌ 자립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약간의 어근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 의존 형태소 -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2) 의미의 기능 여부에 따라

┌ 실질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근, 어간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 형식 형태소 - 조사,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2. 이형태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이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 음운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형태

[받침의 유무로 구분]

[모음조화로 구분]

* 형태론적 이형태 : 음운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형태

[참고] 매개 모음 '-으-'는 형태소 자격이 없다.

⇒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까닭에 '-으-'가 실질적,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으-'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질 형태소에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에서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다만 발음의 편의상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

예) 먹다 ⇒ 먹으니, 먹으면, 먹으나

3. 합성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개념어	기억해야 할 패턴
합성어	의미상 구분	대등	
		종속	
		융합	
	형태상 구분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4.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기억해야 할 패턴
파생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뜻+	
		품사 변경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문장구조 변경	
		문장구조 변경+품사변경	

5. 합성어의 세부 출제패턴

[1] 합성법의 유형

- ① 통사적 합성법 : 우리 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과 같은 유형의 합성.
(명+명, 관형어+명, 주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
예) 돌다리, 작은형, 힘들다, 앞서다
- ② 비통사적 합성법 : 우리 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
(용언의 어근 + 명사)
예) 묵발(묵은 발), 늦더위(늦은 더위), 부슬비, 날뛰다, 굳세다

비통사적 합성어 총정리

1. 용언이 어미 없이 연결
2. 부사가 체언 앞에 위치
3. 우리말 어순과 다른 방식

e.x) 늦잠, 덮밥, 여닫다, 우짚다, 부슬비, 독서, 급수, 등산

[2] 합성어의 의미상 갈래

- ① 대등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된 말.
예) 말 + 소 > 마소, 높푸르다, 오가다
- ② 종속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되, 서로 주종 관계로 연결된 말
예) 국 + 밥 > 국밥, 소나무, 돌다리, 돌아보다
- ③ 융합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말.
예) 밤 + 낮 > 밤낮(늘), 춘 + 추(나이), 세 + 월(시간)
광 + 음(시간), 돌아 + 가다(죽다)

접미사 '-장이'와 '-쟁이'

1. 기술자에게는 '-장이' 예) 미장이, 땀장이, 갓장이, 양복장이
2. 성질, 행동, 모양의 뜻에는 '-쟁이' 예) 멧쟁이, 심술쟁이, 얇은뱅이

[3] 합성어의 파생

- 합성어에 다시 접사를 붙여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기도 함.
예) (해+돋)+이, (품+값)+음, (땡이+치)+기, (나+들)+이, (다+달)+이
되+(돌아+가다), (소금+굽)+이, (툼+툼)+이

6. 파생어의 세부 출제패턴

[1] 접두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①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할 뿐이고 품사를 바꾸지 못함. (한정적 접사)

예) 갓스물, 개소리, 애호박, 맨손, 들뚝다, 신퍼렇다, 설익다, 깎보다

[2]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중요 2번 정독하여, 접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

① 명사로 파생됨

┌ 명사 + 접미사 : 송아지, 선생님, 김씨, 목+아지

└ 동사형용사 어근 + 접미사(-으)ㅁ, -이, -기, -개, -애) : 슬픔, 물음,
별이, 크기, 쓰기, 지우개, 막+애

② 동사로 파생됨

┌ 동사 어근 + 접미사(치, 이, 히, 리, 기) : 놓치다, 먹이다, 잡히다, 벌리다, 남기다

| 명사 + 접미사(-하) : 위반하다

| 부사 + 접미사(-거리, -하) : 꿈틀거리다, 철령거리다, 더하다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밝히다, 녹이다, 높이다, 낮추다, 늦추다, 넓히다

③ 형용사로 파생됨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깜+알다, 높다랴다, 동그랴다

| 명사 + 접미사 : 가난하다, 학생달다, 슬기롭다, 값진다, 기름진다

| 자연스럽다

| 부사 + 접미사 : 차근차근하다, 보들+알다

| 관형사 + 접미사 : 새롭다

└ 동사 어근 + 접미사 : 알+브다, 믿+얼다

④ 부사로 파생됨

┌ 동사 어근 + 접미사 : 맞+우, 넘+우, 참+아, 비롯+오>비로소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잣+우, 많이, 깨끗이, 높이, 다르+이>달리,

| 급히, 없이, 건강히

| 부사 + 접미사 : 곳곳이, 집집이, 더욱이, 일찍이

└ 명사 + 접미사 : 정성껏, 힘껏, 진실로, 정말로

접미사의 표기

받침이 있는 어근 아래에 모음으로 된 접미사가 붙을 때는

┌ 원형을 밝힐 수도 있고 예) 많이, 없이, 물음, 별이

└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기도 함. 예) 모가지, 마주

동사(의 명사형) 와 (파생) 명사의 구분

‘-(으) ㅁ, -기’

1. 서술성이 없거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파생) 명사.

예) 다음 보기에서, 좋은 그림은 비싸다.

2. 주어에 대한 서술성이 있거나,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동사(의 명사형).

예) 나 보기가 역겨워, 복잡한 것을 빨리 그리기는 어렵다.

[2강] Chapter2 단어 (품사)

[품사의 패턴 파악]

기능 기준	형태 기준	9품사(의미기준)	필수 출제패턴 정리
체언	불변어	명사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의 조사사용 차이를 알고 있는가?
		대명사	인칭대명사, 미지칭, 부정칭, 재귀대명사 알고 있나? 기본 지시대명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수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조사	격조사, 모조리 암기하고 있나? 보조사 개념을 이해하는가?
		감탄사	감탄사와 체언+호격조사 형태를 구분할 수 있나?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나?
관계언	불변어	조사	격조사, 모조리 암기하고 있나? 보조사 개념을 이해하는가?
독립언		감탄사	감탄사와 체언+호격조사 형태를 구분할 수 있나?
수식언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나?
		부사	문장부사를 알고 있나? 부사와 용언을 구분할 수 있나?
		동사	불규칙활용, 본용언/보조용언 알고 있나?
용언		가변어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구분하나?

1.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의 출제패턴 정리

[1] 명사

- 유정명사 / 부정명사
- 보통명사 / 고유명사
- ※ 대로, 만큼, 뿐
 - 의존명사
 - 조사

[2] 대명사

① 인칭 대명사

- (ㄱ) 1인칭 대명사 : 말하는 이를 가리킴. 예) 나, 우리, 저, 저희
- (ㄴ) 2인칭 대명사 : 듣는 이를 가리킴. 예) 너, 자네, 그대, 당신
- (ㄷ) 3인칭 대명사 : 다른 사람을 가리킴.

[이것만 기억하자]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분

- 예) 저이, 그이, 이분, 그분, 어느/누구(미지칭), 아무/누구(부정칭), 자기/당신(재귀)
- 예) [미지칭, 부정칭 구분이 필요한 단어] 누구/무엇/어디

② 지시 대명사 → 관형사와 의존 명사의 합성

[이것만 기억하자]
이, 그, 저 용법의 차이

③ 대명사 품사의 통용

-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명사)
- **이** 여자가 바로 내 여자다. (지시 관형사)

[3] 수사

① 수사 품사의 통용

- **두** 명이 여기 왔다. (수 관형사)
-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수사)

2. 관계언(조사)의 출제패턴 정리

[1] 격조사 (무조건 체언과 결합하여, 자격(문장성분)을 부여, 생략가능) [필수암기]

- ① 주격조사 → 주어 : ~이, ~가, ~에서(단체), ~께서
- ② 목적격조사 → 목적어 : ~을/를
- ③ 서술격조사 → 서술어 : ~이다
- ④ 보격조사 → 보어 : ~이/가 + (~되다 / 아니다)
- ⑤ 관형격조사 → 관형어 : ~의
- ⑥ 부사격조사 → 부사어 : ~에, ~에서, ~에게, ~(으)로, ~와(비교) 등
- ⑦ 호격조사 → 독립어 : ~야 (중세국어 : ~하(존칭))

[2] 접속조사 vs 비교 부사격조사 vs 동반 부사격조사 구분 [중요]

- 예) 나는 국어와 수학을 잘한다. : 접속조사
 예) 나는 철수와 비슷하다. : (비교)부사격 조사
 예) 나는 철수와 영화를 보았다. : (동반)부사격 조사

[3] 보조사 (어떤 품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조사, 생략불가) [5개 보조사 암기]

- ① 어떤 특별한 뜻(일정한 의미)을 더해주는 조사
- ② 말하는 이의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을 때 쓴다.
- ③ 말의 표현을 더 섬세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

형 태	의 미	예 문
은/는	대조(주제)	사자는 맹수다.
도	역시, 동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만	유일, 단독	너만 꼭 그런 짓을 한다.
요	상대높임	잘 먹었어요.
까지	극한	너까지 그럴 줄이야.
마저	한계	그녀마저 나를 비난하였다.
조차	첨가	철수조차 영희를 비난하다니.
부터	출발점	부천부터 서울까지.
마다	보편	사람마다 그를 욕했다.
(이)야	필연, 당위	설마 그럴 리야 있겠니?
	강조, 감탄	우습구나야. 굉장히 좋다야.
(이)나	최후 선택	밥이나 주시오.오죽이나 할까?
(이)나마		천원이나마 남았더라면 좋았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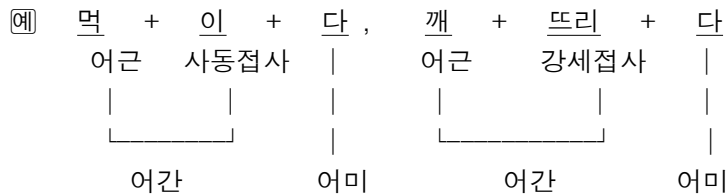
3. 용언(동사, 형용사)의 출제패턴 정리 (1)

(1) 용언의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 활용 :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것
- 어간 : 활용시 변화하지 않는 부분
- 어미 : 활용시 변화하는 부분
- > 용언 외에 활용하는 نوم은?
- > 피동, 사동, 강세의 접사가 붙는 말은 그 접사까지 포함하여 어간으로 본다.
 - 먹이다, 먹히다, 밀치다, 깨뜨리다

어근(語根) 과 어미(語尾)

⇒ 어근은 접사의 상대 개념이며, 어간은 어미의 상대 개념이다.



(2) 어미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어미' 지도 그리기]

어미 - 어말어미(단어끝) :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선어말어미(어말어미 앞)

① 어말 어미의 갈래

- (ㄱ) 종결 어미 - 문장을 종결
- (ㄴ) 연결 어미 - 문장이나 구를 연결
- (ㄷ) 전성 어미 - 용언이 명사, 관형사,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함.
 - └관형사형 전성어미 : -(으)ㄴ, -는, -(으)ㄹ, -던
 - | 명사형 전성어미 : -기, -(으)ㄴ,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② 선어말 어미

- └높임 : -시-
- └시제
 - └현재 : -는-/-ㄴ-
 - | 과거 : -었-/-았-
 - | 미래 : -겠-
 - └회상 : -더-

4. 꼭 정리해야 할 EBS 문항 정리

[문제(수능특강)]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 ㉠과 ㉡으로 쓰인 것을 순서대로 묶은 것은?

< 보 기 >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의 형태가 같을 경우에는 각각이 ㉠ ‘어근’으로 쓰였는지 ㉡ ‘접사’로 쓰였는지를 잘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들개’에 상대하여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이르는 말인 ‘집개’에 쓰인 ‘개’는 포유류 가축의 일종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인 반면, 글씨나 그림 따위를 지우는 물건을 뜻하는 ‘지우개’에 쓰인 ‘-개’는 어근에 붙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 ① 햇볕에 새까맣게 탄 그의 얼굴이 건강해 보였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었다.
- ② 우리는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는 칫뿌리를 짓이겨서 즙을 내서 마셨다.
- ③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뭇잎이 공중에서 휘돌다가 마당에 떨어졌다.
- ④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막살아서야 되겠니?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 ⑤ 바닥에 들붙은 껌을 떼어 내는 게 쉽지 않았다.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문제(수능특강)]

ㄱ~ㄴ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두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이다. 이러한 접두사의 예로는 ‘맨손’의 ‘맨-’, ‘들볶다’의 ‘들-’, ‘시퍼렇다’의 ‘시-’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형태의 접두사라도 고유어로 된 것이냐 한자어로 된 것이냐 등에 따라 다양한 뜻을 지니게 되므로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어떠한 의미의 접사가 쓰였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같은 형태의 몇몇 접두사가 다양하게 쓰이는 예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접두사	뜻	용례
강-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ㄱ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	ㄴ
강(強)-	‘매우 센’ 또는 ‘호된’	ㄷ
외-	‘혼자인’ 또는 ‘하나인’ 또는 ‘한쪽에 치우친’	ㄹ
	‘홀로’	산골에 두 집만이 외떨어져 있다.
외(外)-	‘밖’이나 ‘바깥’	ㅁ
	‘모계 혈족 관계인’	나는 지금 외할머니를 뵈러 간다.

- ① ㄱ: 오늘도 김 씨는 빈속에 안주는 하나도 없이 **강술**을 마셨다.
- ② ㄴ: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강기침**을 했다.
- ③ ㄷ: 우리 팀은 타율이 매우 높은 **강타자**가 많아 다른 팀의 부러움을 샀다.
- ④ ㄹ: 그 여자는 머리를 **외갈래**로 땃았는데, 예전의 쌍갈래보다 좋아 보였다.
- ⑤ ㅁ: 어머니의 남동생 세 분 중에 한 분만 결혼을 해서 **외숙모**는 한 분밖에 없다.

[문제(수능특강)]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형용사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간 끝에 ‘ㅎ’ 받침을 가진 형용사는 ‘좋다’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좋다’ 이외의 단어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다만,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는 ‘-애/-에’로 나타난다.
- ‘으’ 같은 매개 모음이 붙으면 ‘ㅎ’이 탈락하고 매개 모음도 탈락한다.
-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는 활용형(예: 파랑- + -네 → 파라네)과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예: 파랑- + -네 → 파랑네)을 복수 표준형으로 인정한다.

‘좋다’의 활용 예	‘좋다’ 이외의 단어의 활용 예
좋- + -아서 → 좋아서	노랑- + -아서 → 노래서
좋- + -았- + -다 → 좋았다	노랑- + -았- + -다 → 노랬다
좋- + -으니 → 좋으니	노랑- + -으니 → 노라니
좋- + -네 → 좋네	노랑- + -네 → 노라네(○), 노랑네(○)

	형용사	문장에서 사용된 예
①	그렇다	상황이 <u>그러니</u> 어찌할 도리가 없어.
②	조그맣다	오늘 수확한 열매가 그렇게 <u>조그맣니</u> 많이 속상하겠구나!
③	커다랗다	그는 몸집이 매우 <u>커다래서</u> 옷도 큰 걸 산다.
④	동그랗다	빵이 생각보다 훨씬 <u>동그랄네</u> .
⑤	허엿다	밤새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u>허여네</u> .

[문제(수능특강)]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1 > —

조사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립성이 있는 말(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나타난다. 조사는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둘 이상의 단어 등을 이어 주는 기능도 한다. 예를 들어 '눈이 온다.'에 쓰인 '이'는 동작의 주체 뒤에 쓰여 주어임을 드러내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이에 반해 '나는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에 쓰인 '이'는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기능을 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 < 보 기 2 > —

- ㄱ.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가 매우 깨끗했다.
- ㄴ. 피서지에서 예약한 방이 깨끗하지가 않았다.
- ㄷ. 그가 우리를 도와줄 적임자가 아닐까?
- ㄹ. 아무리 생각해 봐도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 ㅁ. 오늘은 친구와 함께 가게를 돌아다니며 선물을 샀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문제(수능특강)]

<보기>를 활용하여 의존 명사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1) ㄱ.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ㄴ.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 (2) ㄱ. 그는 {일하는, 일한, 일할, 일하던 } 데가 많다.
ㄴ. 눈이 {오는, *온, *올, *오던 } 바람에 길이 미끄럽겠다.
- (3) ㄱ.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에 대해 두말할 나위 없었다.
ㄴ.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에 대해 두말할 *나위 몰랐다.
- (4) ㄱ. 그는 사십 줄에 들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다.`
ㄴ. 나는 멧돼지를 보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 (5) ㄱ. 나도 너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 주겠어.`
ㄴ. 어른이 되면 학창 시절에 네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는 비문법적 표현

- ① (1)을 보니, 의존 명사 '데'는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가 수식을 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군.
- ② (2)를 보니, 특정한 관형사형 어미를 요구하는 의존 명사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의존 명사가 있군.
- ③ (3)을 보니, 일부 의존 명사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 제약을 받기도 하는군.
- ④ (4)를 보니, 의존 명사 '줄'은 조사 결합에 상관없이 여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군.
- ⑤ (5)를 보니, 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의존 명사도 있군.

[문제(수능특강)]

<보기 1> 활동지의 ㉠, ㉡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의 예를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1 〉

문장에 쓰인 단어의 형태가 같더라도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품사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문장에 쓰인 ‘다른’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 안에 써 보자.

- 나와 그의 얼굴이 ㉠ **다른**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 그는 자기 일 밖의 ㉡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다른	㉡ 다른
기능상 차이	주어인 ‘얼굴이’에 대한 서술성을 지님.	체언인 ‘일’ 앞에서 체언을 꾸며 줌.
형식상 차이	다른 어미와 결합하여 형태 변화가 가능함.	형태 변화를 할 수 없음.
의미상 차이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의 품사는 ()이고, ㉡의 품사는 ()이다.		

〈 보 기 2 〉

- 그는 왼쪽 다리를 ㉢ **바른**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다.
- 그는 회사에서 가장 인사성이 ㉣ **바른**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
- 나는 놀기도 잘하는 ㉤ **그런** 친구가 좋다.
- 회사 사정이 ㉥ **그런** 걸 내가 어찌할 수가 없네요.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문제(수능특강)]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이 쓰인 예만 묶은 것은?

〈 보기 〉

〈 조사와 ㉠ 어미에 대한 학습 내용 정리 〉

	조사	어미
사전적 정의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어나 구나 절 등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줌. •의존 형태소이며 형식(문법) 형태소임. 	
차이점	앞말과 분리성이 있어 독립된 품사로 인정함.	앞말과 분리성이 없어 독립된 단어로 보지 않음.
구분	나는 밥 먹고 도서관에만 가겠어.	
	‘는’, ‘에’, ‘만’	‘-고’, ‘-겠-’, ‘-어’
실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것은 너한테 주는 내 선물이다.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를 검토한바 오류가 발견됐다. •얼마나 춥던지 손이 다 얼었다.

- ① 오직 네가 의지할 데는 너의 실력뿐이다.
나는 배든지 사과든지 다 잘 먹는다.
- ② 그 아이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다.
형님, 걸어서든지 달려서든지 늦지 않게만 오세요.
- ③ 새로 온 직원이 인사성도 밝을뿐더러 일도 잘한다.
너는 학교에 가든지 체육관에 가든지 해라.
- ④ 장미는 향기도 좋을뿐더러 꽃도 예쁘다.
함께든지 혼자서든지 즐거운 여행을 하면 된다.
- ⑤ 그는 친구들에게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대했다.
나는 운동을 잘한다든지 봉사를 잘한다든지 무엇이든 잘하면 좋겠어.

[문제(수능특강)]

<보기>의 ㄱ~ㄴ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선생님, 동물의 하나를 일컫는 '개'라는 말과 형태가 같은 접사가 있는 게 신기했어요. '개꿈'에 쓰인 접두사 '개-'와 '덧개'에 쓰인 접미사 '-개'도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도 신기하고요. 이처럼 형태는 같은데 여러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 예에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한 예는 많이 있는데, 명사, 조사, 접사 등으로 쓰이는 '들'도 있어요. '들'은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뜻하는 명사로 알고 있을 텐데, 이외에 의존 명사, 접사, 보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의미나 기능	실례
의존 명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냄.	ㄱ
보조사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문장의 끝 등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냄.	ㄴ
접두사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함.	ㄷ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함.	ㄹ
접미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함.	ㄴ

- ① ㄱ: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었다.
- ② ㄴ: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
- ③ ㄷ: **들**개는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를 말한다.
- ④ ㄹ: 형이 동생을 그렇게 **들**볶으면 형제애가 생기겠니?
- ⑤ ㄴ: 식사 때가 지나 많이 배고프지? 어서**들** 식사하렴.

[문제(수능특강)]

<보기>는 국어사전 자료이다.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Ⅱ 「대명사」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3」 (복수 접미사 '-들' 앞에 쓰여) '이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Ⅲ 「관형사」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① ㉠ A: 사과 사 왔어. 어떤 걸로 먹을래?
B: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네.
- ② ㉡ A: 또 연락이 온 거야?
B: 응. **이**들이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 ③ ㉢ A: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
B: 맞아.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
- ④ ㉣ A: 시험에 합격한 것 축하해. 지금 기분이 어때?
B: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 ⑤ ㉤ A: 여기 좀 봐. 사과나무에 검은별무늬병이 생겼어.
B: **이** 병을 없애는 약이 필요하겠단.

[문제(수능특강)]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문장이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어떤 단어가 파생어인지 알아보려면 사전에서 접사로 처리된 것이 단어의 구성 요소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이루는 요소가 사전에 제시된 접사와 형태가 같다고 해서 다 파생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사용되다'에 쓰인 '-되다'는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피동'의 뜻을 더하여, '되다'의 본뜻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으므로 '사용되다'는 파생어로 봐야 해요. 한편 '잘되다'에 쓰인 '되(다)'는 '잘'과 동등한 어근 자격을 가지고 결합한 것으로 '어떤 현상이 생겨나거나 만들어지다.'는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잘되다'는 합성어로 봐야 해요. 그럼 아래의 접사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 파생어를 만든 예와 ㉡ 합성어를 만든 예를 적어 보세요.

- 나다: '그런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맞다: '그것을 지니고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받다: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지다: '그런 성질이 있음' 또는 '그런 모양임'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대다: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
①	그는 정말 별난 행동을 많이 한다.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
②	동생은 익살맞은 표정을 잘 짓는다.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야단맞았다 .
③	그는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받았다 .	그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가보를 끝까지 지켰다.
④	네 생각이 정말로 멋졌다 .	나는 방학 동안 정말로 값진 경험을 했다.
⑤	출렁대는 파도를 보니 마음이 시원했다.	위험한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문제(수능특강)]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이룬 것으로 이해할 때, ㉠~㉤의 의문문을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1 >

대명사의 미지칭 용법과 부정칭 용법은 의문문의 종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지칭 대명사는 모르는 대상을 알기 위해 물을 때 쓰이는 것이고, 부정칭 대명사는 어떤 대상을 특정적으로 꼭 집어서 가리키지 않을 때 쓰이는 것인데, 이 둘은 보통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홀문장에서 미지칭 대명사는 설명 의문문에만 쓰이지만, 부정칭 대명사는 판정 의문문에 쓰이고 더 나아가서 평서문, 명령문 등 다양한 종결 표현에서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가령, 탁자 밑을 보지 않은 채 손으로 더듬으면서 “여기 뭐가 있네.”라는 평서문에서의 ‘뭐’는 미지칭 대명사 ‘뭐’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부정칭 대명사이다.

< 보 기 2 >

- 가: ㉠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나: 저는 화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 가: ㉡ 요즘 누구하고 연애해?
나: 지난달부터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 가: ㉢ 저는 뭘 먹을까요?
나: 삼계탕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 가: ㉣ 수희야, 그 볼펜 어디에서 샀어?
나: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문구점에서 샀어.
- 가: ㉤ 우리 언제 한번 만날까?
나: 옛날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문제(수능완성)]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학습 목표: 파생어와 그 표기에 대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이해한다.
- 학습 자료: ‘한글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깊이, 높이, 다듬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얇, 묽음, 믿음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학생들 의견

(가)

- ① 제19항 1의 예로 용언 ‘길다’에 ‘-이’가 붙은 ‘길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② 제19항 1의 예로 용언 ‘먹다’에 ‘-이’가 붙은 ‘먹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제19항 2의 예로 용언 ‘묻다’에 ‘-음/-ㅁ’이 붙은 ‘묻음’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제19항 2의 예로 용언 ‘죽다’에 ‘-음/-ㅁ’이 붙은 ‘죽음’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제19항 3의 예로 용언 ‘높다’에 ‘-이’가 붙은 ‘높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문제(수능완성)]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와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1 >

제 47 항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 불이 꺼져 간다.
-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그 일은 할 만하다.
- 일이 될 법하다.
- 비가 올 성싶다.
- 잘 아는 척한다.

ㄴ

- 불이 꺼져간다.
- 내 힘으로 막아낸다.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 그 일은 할만하다.
- 일이 될법하다.
- 비가 올성싶다.
-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
①	집이 조용도 하다.	출 끝에 돌을 매달아 놓았다.
②	비가 올 듯은 하다.	이런 일은 다시없을 듯하다.
③	그릇을 닦아만 두었다.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④	이번 일은 알아는 들게.	그들은 값을 물어만 보고 갔다.
⑤	가을밤이 깊어만 간다.	방이 깨끗은 하다.

[문제(수능완성)]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존 명사는 분포상의 다양한 제약을 가진다.

첫째,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하므로 문장의 첫머리에는 올 수 없다.

둘째, ㉠의존 명사는 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일 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에서 '터' 앞에 올 수 있는 동사 '가다'의 관형사형은 '갈'만 되고 '간, 가는'은 가능하지 않다.

셋째, ㉡의존 명사와 관련하여 서술어가 제약을 받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의존 명사 '리'는 '그럴 리가 없다.'와 같이 서술어 '있다, 없다'와 주로 어울린다.

넷째, 의존 명사는 특정 문장 성분에서만 실현되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의 의존 명사 '지'는 주로 주어에서만 쓰이는데, 이런 점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의존 명사를 주어성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에는 ㉢주어성 의존 명사 외에도 ㉣서술어성 의존 명사, ㉤목적어성 의존 명사, ㉥부사어성 의존 명사, ㉦보편성 의존 명사가 있다. 보편성 의존 명사는 이런 제약이 없는 부류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의존 명사는 분포상의 다양한 제약을 가지나, '것'과 같이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나 뒤에 오는 서술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13. ㉠과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먹을 대로 먹어라.'
- ② ㉠: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 ③ ㉠: '그를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다.'
- ④ ㉡: '그 애가 이 일을 알 턱이 없지.'
- ⑤ ㉡: '그야 두말할 나위가 있나? '

14.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가 그럴 리가 있을까'와 같이 '리'는 문장이나 절의주어에서만 쓰이니까 주어성 의존 명사이겠군.
- ② ㉣: '그저 당신을 만나러 왔을 따름입니다.'와 같이 '따름'은 문장이나 절의 서술어에서만 쓰이니까 서술어성 의존 명사이겠군.
- ③ ㉤: '그는 밥도 지을 줄 모른다.'와 같이 '줄'은 문장이나 절의 목적어에서만 쓰이니까 목적어성 의존 명사이겠군.
- ④ ㉥: '이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와 같이 '수'는 문장이나 절의 부사어에서만 쓰이니까 부사어성 의존 명사이겠군.
- ⑤ ㉦: '점무늬 있는 것이 제일 예쁘다.', '이 우산은 언니 것이다.', '멀쩡한 것을 왜 버리냐.' 등과 같이 '것'은 여러 문장 성분에서 쓰이니까 보편성 의존 명사이겠군.

[문제(수능완성)]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1 >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자리에 들어가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자리에 들어간다.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다.

어말 어미는 다시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어미로 나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을 맺어 주는 어미로, 이에에는 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의문형 어미 등이 있다. 연결어미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어미로, 이에에는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 등이 있다. 전성 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또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어미로, 이에에는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 등이 있다.

< 보기2 >

- 밥도 ㉠먹었고 가방도 썼으니 등교 준비는 다 했다.
- 너도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
- 내일 비가 ㉢올지라도 소풍을 가기로 결정했다.
-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구나!
- 곡식이 ㉤익는 가을이 왔다.

- ① ㉠: 둘 이상의 어미가 하나의 어간에 붙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② ㉡: 어미 중에는 어말에 오는 것도 있지만 어말에 올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③ ㉢: 어미 중에는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어미가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④ ㉣: 어미 중에는 감탄문을 만들어 주는 어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 ⑤ ㉤: 어미 중에는 용언이 관형사의 성질을 띠게 하는 어미가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문제(수능완성)]

<보기>의 접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01 「접사」

「1」 (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길이/먹이.﴾

「2」 (몇몇 명사와 동사 어간의 결합형 뒤에 붙어) '사람', '사물', '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때밀이/재떨이.﴾

「3」 (몇몇 명사, 어근, 의성·의태어 뒤에 붙어) '사람' 또는 '사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멍청이/딸랑이.﴾

-이- 02 「접사」

「1」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보이다/기울이다.﴾

「2」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깎이다/놓이다.﴾

「3」 (몇몇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높이다/깊이다.﴾

-이 03 「접사」

「1」 (일부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깊숙이/많이.﴾

「2」 (일부 1음절 명사의 반복 {구성}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집집이/나날이.﴾

- ① '-이 01 「2」'의 예로 '젓먹이'를 추가할 수 있어.
- ② '-이 03 「2」'의 예로 '다달이'를 추가할 수 있어.
- ③ 세 접사 모두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할 수 있는 접사야.
- ④ '-이- 02'는 '-이 01', '-이 03'과는 달리 뒤에 다른 파생 접사가 결합되어야만 해.
- ⑤ '-이 01'은 명사 파생 접사이고, '-이- 02'는 동사 파생 접사이며, '-이 03'은 부사 파생 접사야.

[문제(수능완성)]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의 합성어 여부를 검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두 요소가 결합하는 방식이 구가 구성될 때와 같은 단어를 말하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결합 방식을 보이는 단어를 말한다.

그런데 통사적 합성어는 구를 이룰 때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므로 구와의 구별이 어렵다. 동사로 국한할 경우, 통사적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한 기준은 합성어도 단어이므로 '단어 내부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라는 단어 판별 기준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뛰어서 나다'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뛰어나다'는 합성어이고, '깎아서 먹다'가 가능하므로 '깎아 먹다'는 구이다. 하지만 합성어 여부를 판별하는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아 예외가 많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는 바르지 않은 표현임을 나타냄

- ①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책을 서가에 꽂아두었다.'에서의 '꽂아두다'는 합성어이다.
- ②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섬에 들어갈 배편을 알아보자.'에서의 '알아보다'는 합성어이다.
- ③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에서의 '돌아가다'는 합성어이다.
- ④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번 건너뛰어 보렴.'에서의 '건너뛰다'는 합성어이다.
- ⑤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이 의자는 자리만 잡아먹고 쓸모는 없다.'에서의 '잡아먹다'는 합성어이다.

[문제(수능완성)]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갔다. / 날이 더워서 꽃이 시들어 갔다.
- ㉡ 걸을 꾸민다고 마음이 예뻐지지 않는다. / 그 옷은 예쁘지 않다.
- ㉢ 문제가 조금 어려운 듯하다. / 기차가 연착할 듯하다.
- ㉣ 나는 사과를 먹어 보았다. / 나는 사과를 먹어 보고 싶다.
- ㉤ 약속 시간에 늦었더니 친구들이 다 가 버리고 없었다. / 약속 시간에 늦었더니 친구들이 다 *가서 버리고 없었다.

*는 비문법적임을 나타내는 표시임.

- ① ㉠을 보니,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본용언으로도 보조 용언으로도 쓰일 수 있군.
- ② ㉡를 보니, 동일한 보조 용언이라도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 보조 용언의 품사가 달라질 수 있군.
- ③ ㉢를 보니, 본용언의 품사가 다르더라도 보조 용언의 품사는 동일할 수 있군.
- ④ ㉣를 보니, 보조 용언 뒤에 또 다른 보조 용언이 추가되면, 앞의 보조 용언이 본용언으로 변할 수 있군.
- ⑤ ㉤를 보니,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연결 어미 '-아서'가 들어가면 문법에 어긋날 수 있군.

[문제(수능완성)]

<보기>의 ㉠과 ㉡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 하고,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을 파생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의미를 한정하는데, 특정 접사와 결합하면 파생의 결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한편 접사 중에는 문장 구조를 바꾸는 접사가 있는데, 이러한 접사와 결합한 파생어를 사용하면 ㉡문장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 ① 갑자기 아파하는 딸에게 아빠가 약을 먹였다.
- ② 할아버지에게 안긴 아이는 깊이 잠이 들었다.
- ③ 어머니는 준비해 두신 양념을 뒤섞어 버무렸다.
- ④ 그 친구는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 ⑤ 사람들이 장마를 대비해 독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3강] 문장성분, 문장의 종류

1. 문장성분의 패턴 파악

문장성분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주성분	주어	체언+격조사(보조사)	격조사 암기
	목적어	체언+격조사(보조사)	격조사 암기
	보어	체언+격조사	'보어'의 정의, 부어 vs 주어 구분
	서술어	용언, 체언+격조사	서술격조사의 활용
생략불가	필수부사어	체언+격조사, 부사(~게)	서술어자릿수 이해, 필수부사어 구분
	관형어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격조사	의존명사와 함께 쓰이는 관형어는 생략 불가 (단, 서술어자릿수와는 무관)
부속성분	관형어	관형사, 체언+격조사	관형어 :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 구분
	부사어	부사, 체언+격조사	부사어 : 부사와 용언의 부사형 구분

2. 문장성분의 필수 출제패턴

(1) 서술어의 자릿수 + 필수부사어

① 서술어의 자릿수

(㉠)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함.(자동사, 형용사)

예) 새가 운다. 꽃이 붉다.

(㉡)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또 하나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함.(타동사)

⇒ 주어+목적어/보어/필수부사어

예) 나는 물을 마셨다. 물이 얼음이 된다.

그는 서울 지리에 낫다.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두개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

주격, 목적격 조사 이외의 격조사를 가진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수여 동사 - 주다, 보내다) ⇒ 주어 + 목적어 + 목적어/필수 부사어

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순이가 나를 손을 잡아끈다.

필수적 성분의 부사어

-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틀리다, ...' 등은 '체언+과/와'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그림이 실물과 똑같군요.

(㉡) '넣다, 드리다, 두다, 던지다, 다가서다, ...' 등은 '체언+에/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 수여 동사는 목적어 이외에 '체언+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순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

(㉣) '삼다, 변하다'는 '체언+(으)로'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할아버지는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였다.

(㉤) 이외에도 특정 용언은 '체언+부사격조사'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여기다, 다니다, 주다, 부르다, 하다, 못하다, 바뀌다, 속다,
제출하다, 맞다, 적합하다, 선출하다, 어울리다, (-으로) 만들다,
일컫다, (-이라) 이르다, (-와) 의논하다, (-에서) 살다

3. 문장의 형태 패턴 파악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패턴
홀문장	-	
겹문장	안은-안긴문장	[안은-안긴 문장에서 안긴문장 절의 종류 파악]
	이어진문장	[이어진 문장의 종류 파악]

4. 문장의 형태 출제패턴

(1) 안은-안긴 문장의 종류 구분하기

[안긴문장의 종류를 파악하는 패턴]

[실제 문장으로 패턴 연습하기]

- ㄱ.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2) 이어진 문장의 종류 구분하기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파악하는 패턴]

[실제 문장으로 패턴 연습하기]

- ㄱ.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ㄴ. 그는 값으나, 예술은 살아 있다.
- ㄷ. 봄이 오니 날씨가 따뜻하다.
- ㄹ.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다.

5. 의문문, 부정문

(1) 의문문

① 진술 의도에 따라 ;

(ㄱ) 판정 의문문 - 듣는 이에게 긍정, 부정의 대답을 요구.

예) 너도 지금 떠나겠느냐? (의문사 없음. 古文 '-잇가')

(ㄴ) 설명 의문문 -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설명을 요구.

예)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니? (의문사 있음. 古文 '-잇고')

(ㄷ) 반어(수사) 의문문 - 수사적으로 의문의 효과를 지니며,

겉으로 나타난 의미와 반대 되는 뜻을 지님.

예) 너한테 장난감 하나 못 사 줄까?

(ㄹ) 감탄 의문문 - 감탄의 뜻을 지님. 의미를 존중하여 느낌표를 붙임.

예)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ㄴ) 명령 의문문 - '명령, 금지, 권고'의 뜻을 지님.

예) 빨리 문을 못 닫겠느냐? (명령)

그 일에 왜 참견입니까? (금지)

빨리 가지 못하겠느냐? (강한 권고)

② 내용으로 ;

(ㄱ) 부정문에 의한 의문문(부정 의문문) ;

예) 철수는 집에 가지 않았니? ↗

(ㄴ) 확인을 위한 의문문(확인 의문문) ;

예) 철수는 갔지 않니? ↘

긍정을 가정한 부정 의문문

(2) 부정문

① 안 부정문의 형태

(ㄱ) 긴 부정문 : 용언의 어간 + '-지' + '않다(아니하다)'

(ㄴ) 짧은 부정문 : '안(아니)' + 동사(형용사)

② 못 부정문의 형태

(ㄱ) 긴 부정문 : 동사의 어간 + '-지' + '못 하다'

(ㄴ) 짧은 부정문 : '못' + 동사(서술어)

③ 명령문, 청유문의 부정 → '-지 말다'를 붙임

예) 집에 가지 말아라.(명령문)

학교에 가지 말자.(청유문)

6. 꼭 정리해야 할 EBS 문항 정리

[문제(수능특강)]

<보기 1>의 ㉠과 ㉡이 속한 문장 성분의 공통점을 <보기 2>에서 모두 찾은 것은?

< 보 기 1 >

- 그분께서 ㉠ 일본으로 출장을 가셨다.
- 여기에는 ㉡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이 많다.

< 보 기 2 >

- ㉠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 ㉡ 부속 성분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다.
- ㉢ 한 자리 서술어에는 필수적이지 않은 문장 성분이다.
- ㉣ 두 자리 서술어에는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 문장 성분이다.
- ㉤ 세 자리 서술어에는 항상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문제(수능특강)]

<보기 1>의 ㉠에 속하는 문장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1 >

-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 문장의 필수 성분이 빠져 있는 문장,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문장 등의 비문법적인 문장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 보 기 2 >

- ㉠ 형은 내가 형보다 형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 ㉡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 ㉢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주변 환경을 탓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 ㉣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잘 믿겨지지 않는 것밖에 없다.
- ㉤ 인류의 역사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자와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문제(수능특강)]

<보기 1>의 ㉠~㉣과 <보기 2> ㉠~㉤의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1 > —

관형사절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중 하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말과 동일한 말이 관형사절에서 생략된다. 가령 아래 예에서 '학생'을 두 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줄 친 관형사절에서 '학생이'를 생략한 것이다.

예) 선생님께서 (학생이) 친구에게 선물을 베푼 학생을 칭찬하셨다. (← 선생님께서 학생을 칭찬하셨다. + 학생이 친구에게 선물을 베풀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관형사절 내에서 ㉠ 주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지만, ㉡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고 ㉢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도 있다.

— < 보 기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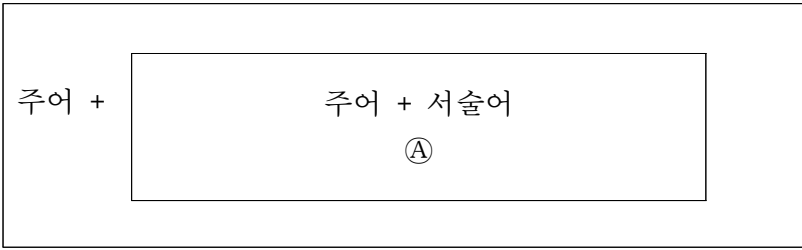
- ㉠ 이것이 우리가 멧돼지를 잡은 몽둥이이다.
- ㉡ 어제 나는 그 소설가를 아는 친구와 만났다.
- ㉢ 형은 내가 이름을 적어 놓은 가방을 탐낸다.
- ㉣ 요즈음 키가 큰 학생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
- ㉤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위생은 더욱 중요하다.

	㉠	㉡	㉢
①	b	a, c	d, e
②	b	c, e	a, d
③	a, d	c	b, e
④	b, c	d, e	a
⑤	b, d	e	a,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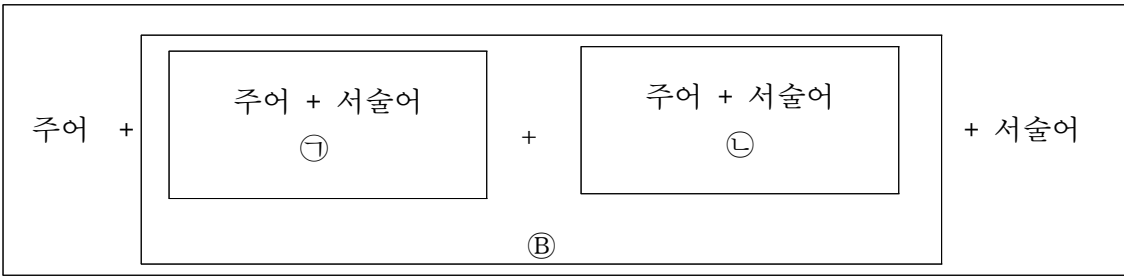
[문제(수능특강)]

㉠과 ㉡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님은 성격이 좋습니다.



㉡ 엄마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어깨춤을 추겠다고 하셨다.



- ① ㉠의 ㉠은 ㉠ 전체의 서술어이다.
- ② ㉠의 ㉠에는 안긴절을 만드는 어미가 없다.
- ③ ㉡의 ㉡는 ㉡ 전체에 인용절로 안겨 있다.
- ④ ㉡의 ㉡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의 ㉠과 ㉡은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지문(수능특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표현은 관점에 따라 달리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례로서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이 하나의 문법적 기능을 하여 그것이 하나의 복합 단위로 분석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1) 가. 나는 민수가 순희를 사랑함을 안다.
 나. 선생이는 삼촌이 이미 떠났음을 안다.
 다. 우리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 (2) 가. 나는 민수가 순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나. 선생이는 삼촌이 이미 떠난 것을 안다.
 다. 우리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란다.

'(1) - 가'는 '(2) - 가'로, '(1) - 나'는 '(2) - 나'로, '(1) - 다'는 '(2) - 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는 것, -(으)ㄴ 것, -(으)ㄹ 것'이 명사형 어미 '-(으)ㄴ, -기'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2)의 밑줄 친 부분은 형식적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형성하는 관형사절이 의존 명사 '것'을 꾸미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것'은 의미적으로 매우 포괄적이어서 특정하게 가리키는 사물이 없다. 다시 말해 '-는 것, -(으)ㄴ 것, -(으)ㄹ 것' 전체가 명사형 어미처럼 기능하여 명사절을 형성한다. 이러한 명사절은 사건이나 상태, 현상이나 사실을 나타낸다.

- (3) 가. 저기 하늘에 뜬 것이 애드벌룬이다.
 나. 네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라.
 다. 나는 동생이 먹을 것을 양보했다.

(2)의 예와는 달리 (3)에서는 '것'이 특정하게 가리키는 사물이 있다. 의미적으로 (3)에서 '저기 하늘에 뜬', '네가 좋아하는', '동생이 먹을'이라는 관형사절은 특정 사물 '것'을 꾸며 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3)과 대조해 볼 때 (2)의 '-는 것, -(으)ㄴ 것, -(으)ㄹ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관형사형 어미+것'이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하나의 명사형 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형식적 관점에 따르면 (2)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사절이 명사 '것'을 꾸며 주는 구조의 명사구가 되지만, 기능적 관점에 따르면 (2)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사형 어미+것'이 명사형 어미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된다.

이처럼 문법적 분석은 관점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것'을 사물뿐 아니라 사건이나 상태, 현상이나 사실을 넓게 뜻하는 말로 이해한다면, 굳이 기능적 관점을 따르지 않아도 (2)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는 것, -(으)ㄴ 것, -(으)ㄹ 것'을 명사형 어미로 다루지는 않는다.

[문제]

기능적 관점에 따를 때, 밑줄 친 부분의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우리는 진수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
- ② 누나는 내가 먹다 남긴 것을 버렸다.
- ③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책이니?
- ④ 그가 말하는 영화는 내가 본 것이 아니다.
- ⑤ 푸른 것은 하늘이요, 넓은 것은 들판이구나.

[문제]

<보기>의 ㉠과 ㉡에 동시에 해당하는 관형사절인 것은?

< 보 기 >

관형사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가) 선생님께서 엄마를 도와 드린 희주를 칭찬하셨다. (← 선생님께서 희주를 칭찬하셨다. + 희주가 엄마를 도와 드렸다.)
- (나) 나는 형이 그 말을 한 기억이 없다. (← 나는 기억이 없다. + 형이 그 말을 했다.)
- (다) 형사는 범인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형사는 사실을 깨달았다. + 범인이 도주했다.)

(가)에서는 원래의 두 문장에 있는 공통 요소 '희주'가 밑줄 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나), (다)에는 ㉠ 원래의 두 문장에 공통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밑줄 친 관형사절 속에 생략된 말이 없다. 한편, (나), (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관형사절도 다시 ㉡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없는 것과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종결어미가 있는 경우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형태상 (가)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와 차이가 없다.

- ① 홍길동 씨가 그 유명한 작품을 그린 화가이다.
- ② 우리는 그 건물이 무너진 사고를 잘 알고 있다.
- ③ 정희는 이 사진을 찍은 공원에 오늘 다시 갔다.
- ④ 내가 어제 본 영화는 부산 국제 영화제 개막작이다.
- ⑤ 나는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여행을 연기했다.

[지문(수능특강)]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희: 성훈 선배! ㉠ 여기에서 뭐 ㉡ 해요?

성훈: ㉢ 목요일에 발표해야 할 과제가 있어서 모아 놓았던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

현수: 과제가 뭔데요?

성훈: 자기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조사해서 ㉣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거야.

지희: 선배는 ㉤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성훈: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환경 운동가야.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그린피스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 그때부터 그린피스에서 ㉥ 일하고 싶어서 관련 자료를 모아 왔어.

현수: 그린피스요? 환경 보호 단체잖아요. 한국에도 그린피스 지부가 있어요?

성훈: ㉦ 응, 2011년에 한국에도 그린피스 지부가 생겼어. 거기에서 활동하고 싶어.

[문제]

- ㉠가 속하는 문장 성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어가 의미하는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된다.
 - ②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 ③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④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을 꾸며 주는 데에 쓰인다.
 - ⑤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을 꾸며 주는 데에 쓰인다.

[문제]

- ㉢~㉥ 중 ㉡와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문제(수능특강)]

<보기>의 [A] 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라.'와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두 문장은 모두 명령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하라'와 '해라'처럼 어간에 붙은 어미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명령형은 직접 명령형과 간접 명령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명령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때 쓰이며, 어간에 '-아라, -어라, -거라, -여라, -너라' 등의 어미를 결합하여 실현해요. 이에 반해 간접 명령형은 인쇄 매체 등을 통해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하거나 불특정 청자에게 명령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며, 용언의 어간에 '-(으)라'를 결합하여 실현해요. 결론적으로 말해, '열심히' 다음의 '하라'는 어간 '하-'에 어미 '-라'가 결합한 간접 명령형이고, '해라'는 어간 '하-'에 어미 '-여라'가 결합하여 변형된 직접 명령형이에요.

학생:

- ① 신문에서 구독자를 위해 쓴 글에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해야겠네요.
- ②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할 때에는 "고장 난 학급 시계를 고치라."라고 해야겠네요.
- ③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한 시험지에는 "다음 중 알맞은 답을 골라라."라고 해야겠네요.
- ④ 청년들을 위해 쓴 격려문에는 "청년들이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라고 해야겠네요.
- ⑤ 고향을 떠나 고생하는 아들에게 직접 말할 때에는 "이제 고향에 돌아와라."라고 해야겠네요.

[문제(수능특강)]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1 > —

문장 성분 중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주성분이라 하고 관형어, 부사어를 부속 성분이라고 한다. 주성분은 문장의 뼈대가 되는 성분이고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이다. 한편,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필수 성분과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수의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은 모두 필수 성분이다. 부속 성분은 주로 수의 성분이지만 필수성분인 경우도 있다. 한편,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을 독립어라 하는데, 독립어도 수의 성분의 하나이다.

— < 보 기 2 > —

- ㉠ 동호가 수희와 잘 어울린다.
- ㉡ 진희가 가을을 무척 좋아한다.
- ㉢ 수진이는 부산 지리에 익숙하다.
- ㉣ 우리는 광장에서 순희를 보았다.
- ㉤ 형님께서 민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① ㉠에는 수의 성분이 2개 들어 있다.
- ② ㉡에는 부속 성분이 1개 들어 있다.
- ③ ㉢에는 필수 성분이 3개 들어 있다.
- ④ ㉣의 '광장에서'는 부속 성분이면서 수의 성분이다.
- ⑤ ㉤의 '민수에게'는 부속 성분이면서 필수 성분이다.

[지문(수능특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문장은 원칙적으로 '주어+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체언+이다'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나타난다. (1가)의 '달리다'는 동사이고 (1나)의 '작다'는 형용사이다. (1다)의 '학생이다'는 '체언+이다'이다.

- (1) 가. 토끼가 달린다.
- 나. 책상이 작다.
- 다. 민수는 학생이다.

그런데 문장에 서술어가 나타나 있으면서도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주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략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령 (2)의 대답에서는 '진수는'과 같은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담화 맥락상 충분히 추론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민호: 진수는 어디 있어?
- 정희: 어, 이미 갔어.

그러나 (2)의 대답에서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고 "어, 진수는 이미 갔어."처럼 주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과는 달리, (3)처럼 문장 구조적으로 주어를 거의 필수적으로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3) 가. 계곡물이 맑고 차갑다.
- 나. 정수가 내 짝꿍인 현주를 좋아한다.
- 다. 민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3가~다)는 아무런 대화적 맥락이 없어도 문장 자체 내에서 주어를 생략하지 않으면 매우 어색해 지거나 비문이 되는 문장들이다. (3가)에서 '차갑다' 앞에 '계곡물이'를 쓰거나 (3나)에서 '내 짝꿍인' 앞에 '현수가'를 쓰거나 (3다)에서 '공부한다' 앞에 '민희가'를 쓰면 매우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된다. 아무런 앞뒤맥락이 없어도 한 문장 안에서 똑같은 주어를 반복해 쓰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가~다)에서 모두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서술어가 두 개 있으므로, 주어도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장 분석은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문제]

<보기>의 ㉠~㉣ 중 주어가 두 개 이상 생략된 문장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 그 친구는 일을 처리할 때에 빈틈이 없다.
- ㉡ 그날 명희가 간 식당은 마침 휴업 중이었다.
- ㉢ 진주는 집에 오자마자 어제 남긴 밥을 먹었다.
- ㉣ 언니가 내년에 유학 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아니?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서술어 역시 주어의 경우와 평행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문장에 주어가 두 개가 나타났다면 서술어 역시 두 개 이상이 나타나 있지 않아도 주어의 개수와 같은 개수의 서술어가 있어야 할 것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

- ① 진희는 이미 읽은 책을 또 읽었다.
- ② 철주는 성격이 좋아 남을 잘 돕는다.
- ③ 정수는 피자를, 지수는 냉면을 먹는다.
- ④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겠다.
- ⑤ 봄이 오자, 그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문제(수능완성)]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뉘고 부속 성분은 다시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뉜다. 부속 성분 중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에는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 ㉡관형사절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 자체로 다른 체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형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부사어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사나 용언 등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에는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과 부사격 조사의 결합형이 용언을 수식하는 것, ㉤의존 명사가 그에 딸린 관형어와 함께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이 있다.

- ① ㉠: 그녀는 옛 물건을 꺼냈다.
- ② ㉡: 철수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기어이 드러나고 말았다.
- ③ ㉢: 부산 날씨를 지금 바로 좀 알아봐 줄래?
- ④ ㉣: 겨우 둘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니?
- ⑤ ㉤: 그는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에 올라섰다.

[4강] 사동, 피동, 시제, 높임, 올바른 문장표현

1. 사동, 피동, 시제, 높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사동에서 기억할 패턴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사동에서 유의할 패턴]	
피동에서 기억할 패턴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피동에서 기출 패턴]	
시제에서 기억할 패턴	[절대시제, 상대시제]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	
높임에서 기억할 패턴	높임의 종류	주요 출제 패턴	중세국어
	주체높임		
	- 간접높임		
	객체높임		
	상대높임		

2. 올바른 문장표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중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오빠를 만났다. ○ 주어와 목적어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호준이와 윤석이를 놀렸다. ○ 비교 대상의 중의성 예)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다. ○ 병렬 구문의 중의성 예) 나는 사과와 감 두 개를 골랐다. ○ 부정문의 중의성 예) 학생들이 다 안 왔다. ○ 진행과 완료의 중의성 예)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
어법에 맞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성분 갖추기 예) (부사어의 생략)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 예) (서술어의 생략) 계곡에서는 수영과 밥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어의 생략)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문장 성분간의 호응 예) (주어-서술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부사어-서술어) 반드시 먹지 마세요. 절대로 먹어야 합니다. 비록 ~일지라도 ○ 이중피동

3. 꼭 정리해야 할 EBS 문항 정리

[문제(수능특강)]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능동문과 피동문은 서로 대응하고, 주동문과 사동문도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피동문이 있는 능동문, ㉠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는 피동문, ㉡ 대응하는 사동문이 있는 주동문, ㉢ 대응하는 주동문이 있는 사동문이 존재한다. 그런데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능동문,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 대응하는 사동문이 없는 주동문, ㉤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도 간혹 있다. 예컨대 능동사 ‘풀다’의 피동사는 ‘풀리다’이므로 능동문 “언니가 의심을 풀었다.”에 대응하는 피동문 “의심이 풀렸다.”가 있다. 그러나 “날씨가 풀렸다.”에 대응하는 능동문은 없다.

- ① ㉠: 그는 이번 추천에서 순위가 밀렸다.
- ② ㉡: 할머니께서 아기를 업으셨다.
- ③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있다.
- ④ ㉣: 그 지역 사람들이 더위를 먹었다.
- ⑤ ㉤: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이도록 해라.

[문제(수능특강)]

<보기 1>의 ㉠~㉤ 중 <보기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1 >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주격 조사 ‘께서’를 붙이는 방법,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어간에 붙이는 방법, ㉡ 주체 높임의 특수한 용언을 쓰는 방법이 있다. 한편, 객체를 높이는 방법은 ㉢ 부사어를 높이는 조사 ‘께’를 체언에 붙이는 방법, ㉣ 객체 높임의 특수한 용언을 쓰는 방법이 있다. 그 외 ㉤ 특수한 명사를 써서 어떤 대상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 보 기 2 >

어제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할머니께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한 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달 보름께 한 번 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갈 생각입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문제(수능특강)]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발화 의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보 기 >

직접 발화란 발화된 내용과 발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것, 즉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간접 발화란 관련된 언어적 표현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도 발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 ①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고 왔다는 동생에게)
언니: 영화 재미있어?
동생: 응. 최근 본 영화 중 제일 재미있었어.
- ②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인사를 하며)
친구 1: 아니, 이게 누구야?
친구 2: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 ③ (수업 종이 올린 다음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에게)
선생님: 정말 빨리도 왔구나!
학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을게요.
- ④ (식당 줄에서 새치기를 하는 동급생을 제지하며)
학생 1: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학생 2: 지금 내가 좀 바빠서 그래.
- ⑤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금연 표시판을 가리키며)
행인 1: 이곳은 금연 구역입니다.
행인 2: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어요.

[문제(수능특강)]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동사라 하고, 문장의 주체가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피동사라 한다. ㉠동일한 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사나 피동 접사를 덧붙여 각각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들 수 있는데, 사동접사와 피동 접사의 형태가 같아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다.

- ① 그녀는 자랑삼아 편지를 나에게 보여 주었다. /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 ② 자전거가 논길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지나갔다. /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 눈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 ③ 기업주들이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 / 그의 집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 ④ 임금은 제 배만 불리는 관리들을 색출하여 귀양을 보냈다. / 시상식에서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 ⑤ 사실 줄곧 누이에게만 애를 업히는 엄마에게 슬그머니 불평 같은 것이 생겼다. / 어린애가 엄마의 등에 업힌 채 세차게 울고 있었다.

[문제(수능완성)]

<보기>는 '있다'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이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높임 표현이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있다'의 높임 표현에는 '있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활용한 '있으시다'와 '있다'의 특수 어휘인 '계시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이 두 높임 표현은 '있다'의 의미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통해 '있다'의 적절한 높임 표현을 알아보을까요?

있다 01

[Ⅰ] 「동사」

[1] 【…에】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Ⅱ] 「형용사」

[5] 【…으로】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Ⅲ] 「보조 동사」

「1」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2」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계시다

[Ⅰ] 「동사」

【…에】

'있다 01 [Ⅰ] [1] 「1」'의 높임말.

[Ⅱ] 「보조 동사」

「1」 '있다 01 [Ⅲ] 「1」'의 높임말.

「2」 '있다 01 [Ⅲ] 「2」'의 높임말.

- ① 교수님께서서는 지금 댁에 있으실 겁니다.
- ② 할머니는 보통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으신다.
- ③ 아버지는 오빠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셨다.
- ④ 선생님께서는 현재 모 대학의 교수로 있으시다.
- ⑤ 어머니께서는 손주가 깰까 봐 계속 안고만 있으셨다.

[문제(수능완성)]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여러분,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 ㄴ. 아버지께 여쭙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 ㄷ. 보라는 달리기 기록 단축을 달성하지 못했다.
- ㄹ.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 ㅁ. 곧 눈이 쏟아질 기세여서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다.

- ① ㄱ과 ㄴ에는 동일한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다.
- ② ㄴ에서는 격 조사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③ ㄷ은 능력의 부족에 의한 부정이, ㄹ은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 나타나 있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사용된 긴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⑤ ㅁ의 종속절에는 미래 시제가 나타나고, 주절에는 진행의 동작상이 나타나 있다.

[5강] 중세국어

1. 초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상형)	가획자 (가획)	병서자	이체자 (이체)
어금닛소리	ㄱ			ㅇ
혓소리	ㄴ			ㄹ
입술소리	ㅁ			
잇소리	ㅂ			ㅅ
목소리	ㅇ			

- 병서자 : 나란히 쓴 글자

* 각자 병서 : 된소리(쌍자음)

* 합용 병서 : 다른 자음끼리 결합 (ㅃ, ㅆ, ㅉ, ㅊ 등)

2. 중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초출자(기본+기본)	재출자(초출+ㅣ)
天(양성 모음)	ㅏ	ㅑ, ㅓ	ㅕ, ㅗ
地(음성 모음)	ㅓ	ㅕ, ㅗ	ㅛ, ㅛ
人(중성 모음)	ㅣ	·	·

3. 중성의 제자 원리

- 중성부용초성 : 초성을 다시 중성에 사용함.

→ 8중성, 7중성법을 거쳐 현재는 중성부용초성

4. 중세국어의 특징 관련 출제패턴

- ①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모음
- ② 어두 자음군 표기 예) ㅼ들(15C)>똥을, ㅼ메(15C)>쌈에
- ③ 모음 조화 철저. 예) ㅅ쫘를(15C)>자를
- ④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ㅍ디(15C)>펴지, 고터 > 고쳐
- ⑤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스물(15C)>스물, 무지개 > 무지개
- ⑥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예) 니르고져(15C)>이르고자
- ⑦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
- ⑧ 현대 국어와 다른 조사 사용 → 현대국어 격조사 파악으로 승부를 본다.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 사용	예) ㄷᆞᆫᆞᆫ에 달아(15C)> 중국과 달라
'동등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비교격 조사 '와로' 사용	예) 文문字字와로(15C)> 문자와는
주격 조사가 자음+ '이' / 모음+ 'ㅣ' / '∅'	예) ㅎ·배(15C)> 할 바가, ㅍ > 산이, 새미 > 새미
목적격 조사 을/를, 을/를	예) 我后를 / 天下를

- ⑨ 현대 국어와 다른 어휘의 의미

의미 변화	예) 어린: 어리석은(15C) > 나이가 적은, 어엿비: 기엿게(15C) > 불쌍하게, 예쁘게
	예) 놈: 사람(15C)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예) 영감: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하는 사람 >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는 말

- ⑩ 이어 적기(연철) 원칙.

이어 적기(연철)	끊어 적기(분철)	거듭 적기(중철)
말씀미	말씀이	말씀미

- ⑪ 받침 표기

종성부용초성	8 종성법	7 종성법	종성부용초성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
꺄	꺄	꺄	꺄

- ⑪ ㅎ 종성체언
- ⑫ ㄱ 종성체언
- ⑬ 명사형 어미 '움/움' 예) 쑤메 > 쓰+움+에

5. 중세국어 심화개념

1) 격조사 총정리

2) 의문형 종결어미

3) 중세국어의 높임법

4) 현대국어 불규칙활용과 소실된 자음

6. 로마자 표기법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æ	e	œ	wi

2. 이중 모음

ㅑ	ㅓ	ㅕ	ㅠ	ㅞ	ㅟ	ㅛ	ㅜ	ㅝ	ㅞ	ㅟ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wi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3. 마찰음 4. 비음 5. 유음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j	jj	ch	s	ss	h	n	m	ng	r, l

[붙임 1]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7.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 표기의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8. 꼭 정리해야 할 EBS 문항 정리

[문제(수능특강)]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습 목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해한다.
- 학습 자료

㉠ 孔子(공자) | 曾子(증자) 드러 닐러 곱으샤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 솔흔父母(부모) 씨 ㉢ 받즈온 ㉣ 거시라 敢(감)히 혈워 상히오디 아니 흠이 효도이 비르소미오 몸을 세워 道(도)를 行(행)하야 일흠을 後世(후세)에 베퍼 ㉤ 뵈 父母(부모)를 현더케 흠이 효도이 ㅁ춤이나라
- 『소학언해』

[현대어 풀이]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가로되, 몸이며 모습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감히 혈어서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 부모님을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다.

- 학습 자료의 활용 계획

㉠

- ①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없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② ㉡: 중세 국어 시기에는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③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체를 높이는 형태소로 '-줍-'이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④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과 조사를 분리하지 않고 이어서 적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⑤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어두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문제(수능특강)]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ㄱ~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중세 국어 문장에서 목적어의 실현]

- 체언에 목적격 조사(을/를, 올/를, 르)가 붙어서 실현됨.
- 체언에 목적격 조사 없이 체언 단독으로 실현됨.
- 체언에 목적격 조사 없이 보조사가 붙어서 실현됨.
-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실현됨.
-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실현됨.

< 보 기 2 >

- ㄱ. 내 太子를 섬기스보다 (내가 태자를 섬기되)
- ㄴ. 꽃 도쿄 여름 하느니 (꽃 좋고 열매 많으니)
- ㄷ. 도한 고조란 프디 말오 (좋은 꽃일랑 팔지 말고)
- ㄹ. 먼저 더 부텃 像을 밍그라 (먼저 저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 ㅁ. 비 특길 아디 흐며서 (배 타기를 알지 못하면서)

- ① ㄱ: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서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 ② ㄴ: 체언에 목적격 조사 없이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 ③ ㄷ: 보조사 '으란'이 붙어서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 ④ ㄹ: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 ⑤ ㅁ: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 '르'이 붙어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문제(수능특강)]

(가)와 (나)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ㅇ, ㄴ, ㄹ, ㅁ, ㅂ, ㄷ'의 여섯 글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되지만 'ㄱ, ㅅ, ㄷ, ㄴ, ㅂ, ㅁ, ㅅ, ㄹ'의 여덟 글자만으로도 쓰기에 충분하다.

가령 '빛꽃'과 '엿의갓'은 'ㅅ' 글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ㅅ'을 쓰는 것과 같다.

- 『훈민정음』의 「종성해」 -

(나) 15세기 국어에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현대 국어와 비교할 때 1개 더 많았다.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에 'ㅅ'이 더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종성에서 8개의 자음이 발음된다는 사실은 종성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 종성만 표기하였던 것이다. 8종성에 속하지 않는 자음은 종성에서 8종성 중 하나로 바뀌어야만 했다. 이때 아음은 같은 아음인 'ㄱ', 설음은 같은 설음인 'ㄷ', 순음은 같은 순음인 'ㅂ', 치음은 같은 치음인 'ㅅ'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 ① 15세기 표기법대로라면 '숲속'을 '습속'으로 적었겠군.
- ② 15세기 표기법대로라면 '남녘'을 '남녁'으로 적었겠군.
- ③ 15세기 표기법대로라면 '햇빛'을 '햇빗'으로 적었겠군.
- ④ 15세기 표기법대로라면 '창밖'을 '창박'으로 적었겠군.
- ⑤ 15세기 표기법대로라면 '땅끝'을 '땅끗'으로 적었겠군.

[문제(수능완성)]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에 나타난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크름이 푸르니 새 더욱 희오
되히 퍼러흐니 곳 비치 ㉡ 불붙는 듯도다
㉢ 웁 보미 본던 쏘 지나가느니
어느 ㉣ 나리 이 ㉤ 도라갈 희오

- 두보, 「절구(絶句)」, 『분류두공부시언해』

[현대어 풀이]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산이 퍼러니 꽃 빛이 불붙는 듯하구나
올해의 봄이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 ① ㉠을 통해 15세기에는 한자어 '강'의 고유어로 '크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15세기에도 비음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을 통해 15세기에는 관형격 조사로 '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해 15세기에는 이어 적기(연철)를 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통해 15세기에도 합성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수능완성)]

<보기 1>은 우리말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이고, <보기 2>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를 연관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 ㉠ Hong Bitna(← *홍빛나[홍빈나])
- ㉡ haedoji(← 해돋이[해도지])
- ㉢ Samjuk-myeon(← 삼죽면[삼중면])
- ㉣ Nakdonggang(← 낙동강[낙똥강])
- ㉤ Ulsan(← 울산(蔚山)[울싼])

* 는 인명을 나타냄.

< 보 기 2 >

- 제 9 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제 17 항 받침 'ㄷ, ㅌ(ㄹ)'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제 18 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ㅗ, ㅛ, ㅝ)'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제 23 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ㅗ, ㅛ, ㅝ)'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 26 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9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17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18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어.
- ④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23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
- ⑤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26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

[문제(수능완성)]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랏 말싸미 申登國靑에 달아 文문字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帑姓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ㅁ츨내 제 ㉢쁘들 시러 퍼디 ㅁ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爲嬴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字를 ㅁㅇ노니 사름마다 ㅎ이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키 ㅎ고져 흙
㉤ㅅ르미니라

-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가엾게 여겨 새
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
라.

- ① ㉠: '나랏'은 명사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관형어이다.
- ② ㉡: '배'는 명사에 주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주어이다.
- ㉢: '쁘들'은 명사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목적어이다.
- ④ ㉣: '뿌메'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부사어이다.
- ⑤ ㉤: 'ㅅ르미니라'는 명사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서술어이다.

[문제(수능완성)]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물근 ㅁ꺽 한 고비 ㅁ술홀 아나 흐르느니

- 『두시언해』 초간본

[현대어 풀이]

맑은 강의 한 굽이가 마을을 안아 흐르니

- ① '물근'이 현대 국어의 '맑은'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은'이라는 어미가 사용되었군.
- ② 'ㅁ꺽'이 현대 국어의 '강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ㅅ'이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했군.
- ③ 'ㅁ술'을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ㅁ'와 자음 'ㅅ'이 쓰였군.
- ④ 'ㅁ술홀'이 현대 국어의 '마을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마을'을 뜻하는 옛말은 ㅎ 종성 체언이로군.
- ⑤ '아나'가 현대 국어의 '안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 적기를 했군.